

[보도자료] 쿠팡, 고당도 '우곡그린수박' 1만 5000통 새벽배송 지역 농가와 '상생 행보'

2026. 5. 12.



박명희 우곡그린수박 공선회 회장과 농민들이 우곡그린수박 상품을 들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 경북 고령군 우곡수박 직매입 물량 전년 대비 3배 확대 13브릭스 이상 고당도 수박 새벽배송
- 인구 감소로 어려움 겪는 지역 농가에 안정적 판로 및 수익 보장

2026. 05. 12 서울 - 쿠팡이 신선식품 새벽배송 서비스인 로켓프레시를 통해 경북 고령군의 특산물인 '우곡그린수박' 매입을 3배 늘려 판매한다.

쿠팡은 지난해 5000여통 수준인 우곡그린수박 매입 물량을 올해 3배인 1만5000여통으로 확대해 전국 새벽배송으로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작년 4월 경북 고령군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500여개 고령 농가의 수박 등 과일을 매입해 전국 판로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의 일환이다.

우곡그린수박은 평균 13브릭스(brix) 이상의 높은 당도를 자랑하는 '명품 수박'으로 명성이 높다. 고령 지역 특유의 큰 일교차와 풍부한 일조량을 바탕으로 특유의 아삭한 식감과 풍부한 과즙을 자랑한다. 그러나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농가 수익성이 낮은 포전(밭 단위) 거래·생산량 저하·재배면적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수박 판로도 전국이 아닌 지역 중심으로 유통돼 왔다.

쿠팡은 우곡 수박이 빠르면 4월 말부터 약 한 달만 생산이 가능한 만큼 발빠른 전국 새벽배송으로 시너지를 높여 농가 수익을 확대할 방침이다. 박명희 우곡그린수박 공선회 회장은 "지난해 쿠팡 판매 당시에도 조기 품질될 정도로 고객 반응이 뜨거워 올해는 공급 물량을 대폭 늘려 농가 수익이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신혜경 고령군청 농업정책과 유통가공팀장은 "쿠팡과의 직매입거래로 수박농가들이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쿠팡은 고령군과의 협력을 강화, 우수한 품질의 과일 매입을 늘려 지역 농가의 온라인 진출을 돕고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쿠팡 관계자는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고객들에게는 전국 각지의 우수한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